

02

베트남 호치민시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 Ward 6, Dis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28-3910-7510
Fax. +84-28-3910-7511
E-mail. hcmc@jipyong.com

Main Contacts

베트남 호치민시 사무소

정정태 변호사
E-mail. jtjung@jipyong.com
Tel. +84-28-3910-7510

본사 베트남팀

김상준 변호사
E-mail. sjkim@jipyong.com
Tel. +82-2-6200-1715

설립일

2007. 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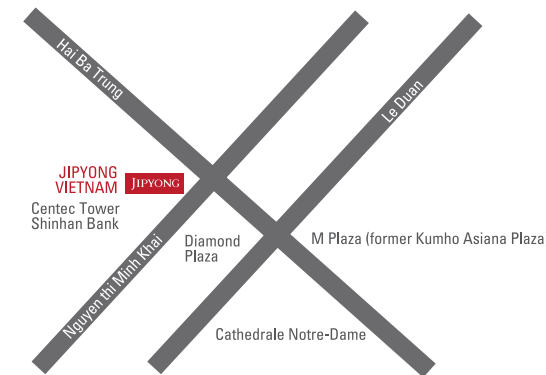
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 사무소는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현지 경영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31일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Ho Chi Minh City)에 설립되었습니다.

호치민시 사무소에는 한국변호사 2명, 베트남변호사 2명, 베트남 수습변호사 1명, 한국인 지역전문연구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장인 정정태 변호사는 서울 본사에서 M&A 및 건설·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만 5년간 근무한 뒤 2011년 호치

민시 사무소장으로 부임하여 만 6년 7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시니어 베트남변호사인 Khoa 변호사는 미국계 로펌인 Russin & Vecchi 및 호주계 로펌인 Allens에서 근무하다 2008년부터 호치민시 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주니어 베트남변호사인 Trang 변호사와 Thuy 수습변호사는 호치민시 사무소의 창립 멤버로 10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함께 많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호치민시 사무소는 업무전문성과 지역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신뢰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사무소는 많은 한국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설립, M&A, PF, 금융거래, 분쟁 등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고, 삼성그룹, 포스코그룹, 신한금융그룹을 비롯하여 40여 개 한국기업들의 현지법인에 대해 일반 운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FLR 1000 2013년판 Banking and capital markets 분야와 IFLR 1000 2016년 및 2017년판의 Banking and Finance 및 M&A 분야에서 현지 활동 중인 한국계 로펌 중 유일하게 “주목할만한(notable)” 로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정태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헌법)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신주연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운시스템(주)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변호사

BUI Tran Dang Khoa 외국변호사(베트남)

- 베트남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졸업(영어학)
- 베트남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Law 졸업
-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Binh Duong-Customer Service Executive
- 베트남 호치민 Russin & Vecchi 수습변호사
- Allens Arthur Robinson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외국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외국변호사(베트남)

- 베트남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Law 졸업
- Lawyers' Training Course in Ho Chi Minh City Branch of Hanoi Legal Institution 수료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외국변호사

Do Thanh Thuy 외국수습변호사(베트남)

- 베트남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y 졸업(영문학)
- 베트남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Law 졸업
- Lawyer's Training Course in Ho Chi Minh City Branch of Judicial Academy 수료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외국수습변호사



본사 베트남팀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사회학)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통상법무학)
-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법학석사)
- IFLL, Leading Lawyer 선정(2012년, 2017년)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법학석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7년)
-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근무
- IFLL, Leading Lawyer 선정(2012-2017년)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한승혁 외국변호사(호주)

- Bond University, 법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석사(최우수졸업, 총장상 수상)
- 호주 빅토리아주 변호사(Solicitor & Barrister)
- Freehills 국제법률회사 소속변호사
- Allens Arthur Robinson 국제법률회사 선임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김관수 변호사

- 연세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졸업
- SK텔레콤 상품개발팀
- 한국투자신탁운용 실물자산운용본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CFA,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취득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 M&A, 금융·증권, 해외투자, 건설·부동산 등

주요 실적

LS전선과 화승 베트남법인 성공적인 상장 자문

2016년 베트남회사로는 최초로 LS전선과 화승인 더스트리의 현지법인들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음

베트남회사들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기에 베트남 시장은 협소하여 외국에서의 상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음. 한국거래소도 외국기업의 상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으나, 베트남법과 한국법의 제약으로 인하여 베트남회사가 직접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래서 베트남회사의 지분을 출자하여 한국에 SPC를 설립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구조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상장을 할 수 있었음

지평 호치민시티 사무소는 서울 본사와 협업하여 위와 같은 상장 구조를 설계하기 위하여 베트남 법률을 검토하였고, 현지법인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기 위한 현지 인·허가, 현지법인의 실사 및 거래소에 제출할 법률의견 작성을 수행하였음



신한은행 법인화 및 합병 자문

2009년 외국계 은행 최초로 현지 지점을 법인 전환하는 것을 자문한 데 이어 2011년 종래 베트남 국영 은행과 합작설립하였던 은행(신한비나)과 지점에서 법인 전환한 100% 자은행(신한베트남)과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음. 베트남에서 외국계 은행 간의 합병으로는 최초 사례임

CJ대한통운 현지법인들 조직 통합 자문

CJ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로 그룹 내 물류회사들(대한통운 및 GLS)이 보유한 현지법인들의 조직을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분양수도와 자산양수도 거래 및 청산 과정을 거쳐 3개 현지법인의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음



현대미포조선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을 대리하여 베트남 국영 물류회사 상대 중재 승소

현대미포조선 현지법인(현대비나신)의 선박 수리와 관련하여 선주인 베트남 국영 물류회사(GEMAD EPT)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현대비나신 및 그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대리하여 100% 승소하였음

주요 대기업 및 금융기관 Retain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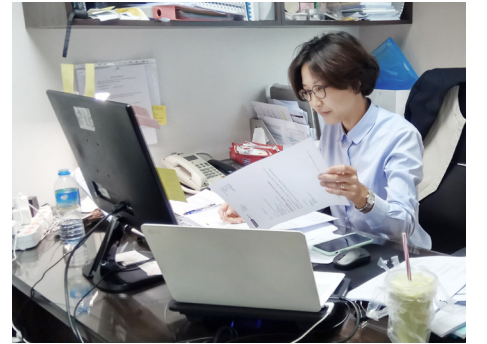
현재 한국계 금융기관 대부분(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과 삼성그룹 현지 계열사 대부분(삼성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웰스토리, 삼성전기,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SDS, 제일기획, 호텔신라) 및 포스코그룹 현지 계열사 대부분(포스코 대우, 포스코 베트남, 포스코 베트남홀딩스, 포스코 ICT, 포스코 SS VINA, 포스코 VHPC, 포스코 VST)의 일반 운영 자문을 하고 있음

- CJ O Shopping을 대리하여 현지 케이블방송사와 합작으로 홈쇼핑회사 설립 자문
- 롯데제과를 대리하여 현지 상장 제과회사인 Bibica의 지분인수 자문 (한국 회사가 베트남 상장사를 인수한 최초 사례)
- 호텔롯데를 대리하여 호치민시 소재 5성호텔(Legend Saigon)의 인수 자문
- 롯데마트 베트남법인을 대리하여 현지 10여 개의 지점 개발 자문
- 신한금융투자를 대리하여 현지 증권사 인수 자문 (한국 증권사가 현지 증권사 지분 100%를 인수한 최초 사례)
- 미래에셋캐피탈을 대리하여 현지 Finance Company의 설립 자문 (한국계 금융기관이 현지 Finance Company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데 성공한 유일한 사례)
- 산업은행을 대리하여 호치민시 금호아시아나플라자의 Project Finance 자문
- LS전선의 현지 자회사들과 화승 현지법인의 한국거래소 상장 자문 (베트남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최초 사례)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강점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는 한국기업의 베트남 업무에 대해 가장 많은 경험과 전문성 및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과 Retain 계약을 맺고 일반 운영 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현지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요소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충실한 분석 및 자문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치민시티 사무소는 본사에서 다년간 업무를 수행한 파트너변호사가 현지에 장기 주재하여, 현지에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Managing 및 수행이 가능하고, 한국 법제도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한국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로펌(Allens)에서 다년간 업무를 수행한 시니어 베트남변호사가 근무하여 국제거래와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사 베트남팀은 다양한 업무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고,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기에 여러 지역의 유사 사례 및 법제도 비교 검토를 통한 폭넓은 자문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정정태 변호사



언제 호치민시티 사무소에 부임했는지?

2006년 4월 육군 법무관을 제대하고 바로 법무법인 지평에 입사하여 자문그룹(회사)에서 M&A와 건설·부동산 업무를 맡아 5년간 근무하였고, 2011년 3월에 호치민시티 사무소에 부임하였습니다.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특징과 강점은?

한국변호사와 베트남변호사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 다른 한국 로펌과 비교되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베트남변호사 3명 중 2명은 2007년 창립 때부터 함께하였고, 나머지 1명도 2008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호치민시티 사무소에 부임한 지 6년 7개월째여서, 호치민시티에 있는 한국변호사 중 가장 오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한국 로펌은 본사 근무 경력이 없거나 짧은 외국변호사가 사무소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본사에서 만 5년간 근무하여 전문성을 쌓은 사무소장이 근무한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가장 풍부하다고 자부합니다.

베트남 경제와 한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망은?

국고 수교 후 초기에는 섬유와 신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였습니다. 경공업 분야는 최근 들어서도 중국에서 이전하거나 TPP와 FTA 수혜를 기대하고 새로이 진출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공업과 부동산 분야의 투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한국기업의 진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베트남이 2007년 WTO에 가입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때 법률시장도 개방되어 저희도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과 유통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업종들이 진출하였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삼성전자 제2공장이 들어서면서 하노이와 북부 지역에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이 활발히 진출하였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연 6~7%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체의 수출 생산기지 역할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확대를 노리는 서비스 업종의 진출이 계속 이어지리라 예상됩니다.

호치민시티 사무소 향후 전략은?

기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일반 운영에 대한 자문을 꾸준히 하고 있고, 신규 진출기업의 법인 설립, M&A 등 자문 의뢰가 계속 늘고 있어 2016년에는 한국변호사도 추가로 총원하였습니다. 가장 풍부한 현지 업무 경험을 갖춘 인적 구성을 토대로 향후에는 SOC, 국제분쟁, 무역제재 등 보다 전문화된 업무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일들은?

저희가 자문한 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고객의 사업이 번창하는 소식을 접할 때 한국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일조하였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

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CJ E&M을 대리하여 현지 영화 제작 투자를 몇 건 자문하였는데, 그 영화들이 현지 박스오피스 역대 1, 2위 기록을 세우고, 엔딩 크레딧에 저희 이름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저희 업무에 만족하시고 감사 인사를 전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호치민시티 사무소 공익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호치민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몇 년 전부터 건너 대학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정 여성의 직업훈련 및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단법인 두루와 같이 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도움은 못드리고 있지만, 금전적 도움 뿐만 아니라 저희 전문성을 살려서 이혼, 친자확인, 양육비 청구, 상속 등의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후배 변호사들에 대한 조언은?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로스쿨 인턴들이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보면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해외 거주 경험, 국제중재대회 참가 이력 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변호사로서 베트남 업무를 하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합리적인 리걸 마인드입니다. 한국변호사가 아닌 미국이나 다른 외국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법이든 그 기본이 되는 법체계와 논리를 잘 이해하면 이를 토대로 다른 나라 법을 습득하고 해석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기본 법논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외국 법을 문언대로만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 나라 언어 전공자의 일이지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UI Tran Dang Khoa 외국변호사(베트남)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에는 어떻게 합류하게 되었는지?

저는 지평 베트남 사무소에 입사하기 전에는 호주 로펌인 Allens의 호치민시티 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Allens에서 한승혁 외국변호사님과 함께 포스코, 금호, 효성, 아쿠르트 등 한국계 및 일본계 의뢰인들을 담당했었습니다. 2007년 지평 베트남 사무소가 설립된 후 한승혁 외국변호사님이 지평 베트남 사무소로 이직하셨고 그때의 인연으로 저도 지평 베트남 사무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Allens에 있을 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던 의뢰인들(포스코, 금호, 효성 등)도 지평 베트남 사무소의 새로운 고객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지평 베트남 사무소를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평 베트남 사무소에 합류하게 된 이유는 한국계 의뢰인들의 한국식 스타일에게 익숙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계 기업들은 한국 로펌 이용을 더 선호합니다. 저는 좋은 친구와 한국 고객들을 잃고 싶지 않았 습니다.

호치민시티 사무소에서 맡은 업무와 역할은?

사무소의 내부 절차에 따라 사무소장으로서 의뢰인들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정정태 변호사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의뢰인들에게 적합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베트남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소 내의 다른 베트남변호사들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베트남 국제중재 센터에서 진행된 베트남 국영기업과 현대비나신과의 분쟁중재사건으로, 저희가 현지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피신청인 현대비나신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분쟁을 해결했던 사건입니다. 동 사건에서 특히, 인맥이나 로비 등 다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자문을 제공하여 승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베트남 법률시장에서 지평의 위상은 어떠한지?

의뢰인들은 종종 본국계의 로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계 의뢰인들은 미국 로펌을, 호주계 의뢰인들은 호주 로펌을 찾습니다. 베트남에는 한국계 의뢰인들이 선택할 한국 로펌들이 많습니다. 지평은 베트남에 최초로 설립된 한국 로펌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의뢰인들 중의 다수가 대기업들(포스코, 효성, 금호, 삼성, 롯데, 이마트, 신한

등)로 이들은 설립 초기부터 지평의 도움을 받으러 왔고 여전히 지평의 고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들의 지평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평은 특히 부동산, 투자, 인수합병, 증권, 은행 등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분야에도 뛰어난 현지 소송변호사들과 협업을 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평에 더 많은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평 베트남 사무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한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초창기부터 합류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평 베트남 사무소는 2007년에 설립되었고 저는 2008년에 입사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평 베트남 사무소가 현지 인력 및 조직 차원에서 안정화 되어온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10년 전에 봤던 사람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를 만나 보실 수 있기를 희망하고, 훌륭한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지평 베트남 사무소의 계속 성장을 확신합니다.